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서울 지지율 9%p 급락 29% '최저' 부정평가 51%...공정 크게 앞서 '부적합' 김승원 43% 용혜인 61% 민주 38% 국힘 29% 무당층 26%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0%대로 추락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38%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추가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률은 전주와 같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긍정평가가 레임덕 수준인 29%로 추락하며 전국 최저를 기록, 서울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부정평가는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보다 9%포인트 폭락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높아졌다. 전남광주·전북에서만 60%였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11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4%), '인사(人事)'(16%), '경제/민생'(10%), '도덕성 문제/본인 재관 회피'(6%),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4%), '국방/안보', '검찰 권한 축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사 문제 언급이 더 늘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 인선 과정을 집착했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

[한국갤럽]은 "인사 문제 언급이 더 늘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 인선 과정을 집착했다"며 "부동산 문제

●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적합 여부 평가



갤럽 실시 지난 8~10일 전국 유권자 1,000명 김승원·용혜인 장관후보자 적합여부 전화조사 결과(CATI) 질문 순서는 로테이션 <이미지=한국갤럽>

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관한 유권자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민주당 의원 김승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적합하다' 22%, '적합하지 않다' 43%, 의견 유보 36%였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에 대해서는 적합 13%, 부적합 61%, 의견 유보 2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

민의힘 29%,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진보당 각각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였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국힘 도당 “민주당 압도 전북 왜 숙원사업은 제자리인가”

김민석 대표 전북 방문 '약속' 비판 "정치적 우위에도 전북 현안 담보"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해결 압박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전북을 찾아 또 하나의 약속을 하고 갔는데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전북을 찾아 "챙기겠다", "지원하겠다",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도민들은 이제 "하겠습니다"가 아닌, "해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고 일갈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발전을 약속했고, 이원택 전북도지사도 수많은 약속을 내놓았지만 전북대는 주요 지원사업에서 소외됐고, 금융중심지 지정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인구는 170만 명 붕괴를 걱정해야 하고, 전주시 역시 60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혹평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전북을 챙기겠다", "지원하겠다", "확신한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전북의 현실이 달라지는 않는다"며 "김민석 대표는 전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 선정을 확

신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후속 선정은 도대체 언제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현대차 새만금 투자,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전북대 지원까지. 전북은 이미 수많은 약속을 받아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을 하나 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는 약속을 하나씩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고 윤을 댔 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전북을 위해 일할 정치적 조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도당은 "전북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김민석 당대표가 있고, 익산시갑 한병태 원내대표가 있으며, 전주시을 이성윤 최고위원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 전북의 국회의원도 지방권력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이 정도의 정치적 힘을 가지고도 전북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표가 필요할 때만 전북을 고향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 어렵고 힘들 때 먼저 찾아와 챙기는 것이 진짜 고향을 대하는 자세다"고 직격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농촌공동체, '행복농촌' 전국 무대에서 잇단 수상

전국 본선 15곳 중 전북 4곳 진출 부안 김서연 씨 우수주민 금상 진안 용담면·남원 주생면 동상 무주·정읍도 입선 성과 거둬

전북 농촌마을과 주민들이 전국 단위 농촌공동체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부안군 김서연 씨가 우수주민 분야 금상을, 진안군 용담면과 남원시 주생면이 각각 농촌만들기와 농촌환경개선 분야 동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무주군 두문마을과 정읍시 칠보면도 각각 마을만들기와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입선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온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전국 규모 행사다. 올해로 13회를 맞았으



전북 농촌공동체 저력 전국 무대서 '우뚝'

진안군 용담면 주민들이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담면은 '살림 공동체'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며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농촌환경개선, 우수주민 등 4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 15개 본선 진출팀 가운데 4개 팀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진안군 용담면은 용담면 건

설에 따른 수몰의 아픔을 딛고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림 공동체'를 만들어 온 점을 인정받아

농촌만들기 분야 동상을 수상했다. 농촌환경개선 분야 동상을 받은 남원시 주생면은 18개 마을, 1,663명의 주민이 함께 깨끗한 농촌과 자원순환을 실현해 온 사례를 선보였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주민 분야에서는 부안군 김서연 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김 씨는 부안 쌀의 생산·가공·체계를 연계한 융복합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의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마을만들기 분야에 참가한 무주군 두문마을은 주민들이 복원한 전통 불꽃놀이 '낙화놀이'를 중심으로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로 입선했다. 정읍시 칠보면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행복공동체, 칠보'를 주제로 주민 참여형 문화·돌봄·복지 활동을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농촌만들기 분야에 입선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와 플러스사업,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자립적인 마을공동체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공동체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 온 결과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집행 부진·낭비 개선해야”

올림픽유치단·안전실 등 결산심사 기원대회 예비비 사용 부적절 지적 보조금 미수납액 징수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결산심사 2일 차인 지난 11일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도민안전실,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

먼저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2036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집행 실적



김경진 의원



김영자 의원



유승열 의원

을 점검하며,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편성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각종 기금 운용의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 유사여부를 검토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승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실태를 점검하며, 미수납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징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



이인숙 의원



노경만 의원

김주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이자수입 과다 발생은 사업 지연과 정산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한 정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출연금 정산 현황에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의 인건비와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을 살피며 신규 사업 발굴 실적을 점검하고, 결산검사에서 제기된 개선·권고사항이 형식적 조

치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예수병원 통합 재활병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공성이 매우 짙은 핵심 현안 사업인 만큼 병원 건립은 물론 완공 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차질이 없도록 행정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수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 지표의 달성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인구정책과의 연계 등 대응 미비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김의겸 “신약로비 수사자료 유출자 2~3명 특정”

검찰 내부 문건 외부 유출 주장
한동훈 “이번엔 뭘 겠냐” 반박



김의겸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한동훈 의원에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로비 의혹’과 관련,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2~3명으로 압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정말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수사 기록 중 일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있지만...그런데 몇몇 건은 그런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건 처리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가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세 차례 보냈다”며 “그 내용은 정말 한 5명 정도, 서부지검과 대검 검찰 지도부 포함해서 한 대역서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라고 검찰 내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호사 손에도 안 가고, 오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역서 명 밖에 안 된다”며 “그중에서 이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명, 3명 이 정도로 특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서 이거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피해 사실 공표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건의 이 기록들이 보관돼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빼내려면요, 그러면 거기에는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접근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 내부자가 유출했다고 확신했다.

또한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아무 리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몇 명으로 특정이 될 텐데”라면서 “이렇게 되면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 소식을 들은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담 흑석 김의겸. 또 당신이야”며 과거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한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허위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나는 모든 것을 겠네니 (김 의원은)무엇을 겠 겠냐”며 술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항의했었다.

한 의원은 또 “이번엔 당신도 뭘 좀 거시죠”라면서 “나는 이번에도 다 겠 테니까요. 저는 언제나 국민 앞에 다 겠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영목기자

박지원 “북미대화 기류,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정세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평화 외교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9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하며 “군사훈련이 끝났을 때 다시 연락하라”라는 대목을 질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8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57기)을 명시한 일련의 행보를 제시하며, “이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화답이자 정치적·역사적 유산을 쌓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정밀 분석했다. 이에 정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남기겠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한다”며 박 의원의 시각에 공감했다.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질의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에



박지원 의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뮬레이션 위계임 1부는 정상 시행했고 부족분은 후반기 보충이 가능해 대비

태세 영향은 미미하다”며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도 정상 시행되어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박윤주 외교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질의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이후 한미 외교당국 간 24시간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받고,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채널을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평통 격려사에서 밝힌 “우리가 움직여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 사항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총리가 중심이 돼 내각 전체가 일체화된 ‘원팀(One-Team)’으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농민공익수당 742억 추석 전 지원

16만5천여명 742억 규모 지급

시군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예정 농가소득·골목상권 활성화 모색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농업인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2026년도 대상자를 최종 확정, 742억 원 규모의 수당을 16만 5,000여 농업인에게 9월 7일부터 순차 지원

하며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생태계 다양성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업인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

올해 수당은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체를 구성하는 인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뒤, 8월까지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수당은 시·군별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는 수당 전액이 도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명절 대목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온기를 불어넣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급이 완료되는 대로 시·군별 집

행 현황을 점검해 미수령 대상자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급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에는 사업비 정산과 성과 분석을 진행해 제도 운영의 내실도 다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여민의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라며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지급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추석맞이 장애인·어르신 생산품 ‘한자리’

도청서 선물세트·먹거리 등 선택 장애인생산품 18일까지 순회 행사

전북도가 추석을 맞아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생산품을 선보이며 판로 확대와 자립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11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추석맞이 전시·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제품을 도민과 공공기관에 알리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어르



<사진=전북도>

신 일자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에는 장애인생

산품 판매시설과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육포와 떡, 김, 누룽지 등 추석맞이 선물세트와 다양한 생산품을

선보인다. 현장 판매와 함께 유선·이메일을 통한 사전 주문과 배송도 병행한다.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는 도청을 시작으로 순창·무주·임실·익산·완주 등 5개 시·군 청사에서도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이외 시·군도 별도 일정을 협의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생산품 판매행사에는 전주·전주서원·전주효자·군산·김제지평선·완주·진안·임실·순창 등 도내 시니어클럽 9개소가 참여한다.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가공한 청국장, 김부각, 누룽지, 참기름·들기름, 전장김, 찹쌀누룽지, 고춧가루 등 총 55종의 제품을 판매한다. 현장 구매뿐 아니라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한 주문도 가능하다.

/장정철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최준호 기자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부안, 지역 소비 촉진 ‘최선’ 2(題)

김제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김제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 71억원을 15,453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 후 지급요건에 대한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했다.

지원금액은 1인 경영체의 경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농업인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카드도 지급한다.

특히 추석 명절 전에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공익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부안군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부안사랑상품권 특별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늘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5%를 부안사랑상품권 캐시백으로 지원한다.

이번 특별 지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유지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

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이 지정한 관내 착한가격업소 중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63곳이다.

기존 부안사랑상품권 구매 시 제공되던 12% 선환인 혜택과는 별개로 해당 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5%의 캐시백이 추가로 적립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다양한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70여년을 건너 돌아온 무공훈장”

고창군,故김만순 상병

화랑무공훈장 전수 추진

고창군이 내달 1일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故김만순 상병의 유가족께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전쟁의 혼란 등으로 실제 훈장을 전달 받지 못한 수훈자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해 추진된다.

故김만순 상병은 1930년생으로, 1952년 1월 30일 입대해 육군 제8사단 16연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며 보급계 임무를 수행한 뒤 1954년 9월 20일 제대했다. 이후 육군본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를 통해 수훈 사실과 유가족이 확인되면 서 70여 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고창군은 유가족과 일정을 협의해 전수식을 마련하고, 심덕섭 고창군수가 유가족에게 직접 훈장을 전달하며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으로, 이번 전수는 단순한 훈장 전달을 넘어 오랜 세월 묻혀있던 참전용사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다시 기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7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의 공훈은 결코 잊혀서는 안된다”며 “늦게나마 故김만순 상병의 명예로운 훈장을 유가족에게 정중히 전달하고,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군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책나래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책나래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 등에게 원하는 도서를 집까지 배송해 주는 무료 택배 대출·반납 서비스이다.

이는 우체국과 연계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이용자는 별도의 배송비 부담 없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부안군립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통합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책나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용한 도서는 같은 홈페이지에서 반납신청을 통해 반납할 수 있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부안군립도서관으로 전화하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반납 신청이 전화로만 가능하므로 이용에 참고해야 한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산 동래구 통장단, 자매도시 고창군 찾아 우호교류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장단이 자매도시인 고창군을 찾아 지역 간 우호를 다지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은 지난 11일 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과 최병록 동래구 통장협의회회장을 비롯한 통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동래구 통장 선진지 견학 및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의를 높이고,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창군과 동래구의 자매결연 관계를 되새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통장단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동래구 통장단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고창군의 주요 관광자원과 지역 특화자원 등을 둘러보고, 지역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과 동래구의 소중한 인연이 행정기관 간 교류를 넘어 주민과 주민을 잇는 따뜻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이 서로의 경험과 정을 나누고 두 지역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부안축협, 근농인재육성 장학금 30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고창부안축협이 지역 인재 육성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고창부안축협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고창부안축협은 조합원과 지역민의 삶과 함께하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가는 데 든든한 응원이 되고 있다.

고창부안축협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고창부안축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정기분 재산세 기한 내 납부 당부

80억원 부과

김제시는 2026년 9월 토지 및 주택 27기분 정기분 재산세 71,346건, 80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이며,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½씩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9월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된 것으로 이중 부과가 아니므로 안심하고 납부하면 된다.

토지 재산세는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해당되며, 분리과세 대상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목장용지 등이 해당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당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및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위택스,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의의회, 제37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부안군의의회는 지난 1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7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부안군이 제출한 9351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4억 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 김정균 의원은 ‘부안댐 건설 30년,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군민의 희생에 답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안댐으로 인한 군민의 희생을 강조하며, 광역상수도 구입단가 차등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부안군이 적

극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강세 의원은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송희복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임정숙 의원은 임정숙 의원은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장은아 의원은 ‘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런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의견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김제시는 지난 11일 시청대강당에서 보건·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와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식전 퓨전국악 4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보건의 날 기념 퍼포먼스, 힐링 문화공연, 소풍 프로그램,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보건·의

료 분야 유공자 25명에게 김제시장 표창을 수여해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참석자 모두가 함께 건강실현 의지를 다지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건강생활 실천 확산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정부 정책 연계 성장전략 마련

중앙부처 향우간담회서 국가예산 확보 협력 강화

김제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성장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현서 부시장, 간부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시청 주요 현안과 2027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와 김제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우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김제시 중점사업이 신규로 다수 반영된 것과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은 향우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김제시>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김제시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김제시와 향우공무원이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축으로 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가을맞이 ‘발효 치유 김치체험’ 운영

내달 말까지 진행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가을을 맞아 내달 말까지 고창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효 치유 김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의 우수한 발효식품 문화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며 발효식품의 가치와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센터가 보유한 현대식 김치양념 생산공장에서 위생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한 고품질 김치양념을 활용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게 된다.

이를 통해 김치 제조 과정을 배우는 것은 물론, 고창 지역 농산물과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은 센터 내 전용 김치체험장에서 회당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가족·친구·단체 등 다양한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센터는 최근 관내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공음면 청보리 파크골프장과 연계해 스포츠·레저 활동과 지역 먹거리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농식품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파크골프장 등 지역 명소를 찾는 방문객들이 고창의 건강한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김제시 중점사업이 신규로 다수 반영된 것과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은 향우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파크골프장 등 지역 명소를 찾는 방문객들이 고창의 건강한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주생면 ‘자원순환’ 행복농촌 장관상

18개 마을 ‘자원순환 마을지킴이’ 주민 주도 모델 환경개선 우수 평가

남원시 주생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농촌환경개선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동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농촌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경연 행사다.

주생면은 전국 시·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농촌환경개선분야 최종 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쓰레기 배출장 관리

자 운영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이번 경연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우선 관내 18개 모든 마을 분리배출장에 주민 전담 관리자인 ‘자원순환 마을지킴이’ 18명을 배치한 점이 꼽힌다. 이들은 매일 쓰레기 적체 방지와 분리배출 상태를 상시 점검함으로써 이장의 과중한 관리 부담을 덜고 깨끗한 배출 환경을 정착시켰다.

또한 고령 농가 및 소농 가구를 위해 밭으로 직접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방문 수거’를 실시하고, 재활용품을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해 주민 참여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바닥 유도선에서 착안한 시각적 유도선을 배출장에 도색하여 어르신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야생동물로 인한 쓰레기 훼손 방지 절망을 설치하는 등 마을 맞춤형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기존 주생면 노인회관을 의류·물품 나눔 공간인 ‘자원순환 가게’와 주민소통 쉼터인 ‘주민(웃)수다 카페’를 결합한 ‘주생이음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단순한 환경 정화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울러 자원순환 마을지킴이 역량 강화 교육과 18개 마을 주민 대상 분리배출 순회 교육을 정례화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양지천 가동보 개선…침수 피해 막아

도비 12억원 투입 하천 정비 올해 집중호우 피해 예방 실패

순창군이 양지천의 수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가동보 개선사업이 올여름 집중호우에서 효과를 보이며 안정적인 하천 관리에 힘을 보탰다.

군은 총사업비 12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 양지천 일원의 가동보와 용수로, 제방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면서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를 신속하게 조절하고 원활한 배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순창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수차례 방문해 양지천의 현장 여건과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도비 12억원을 확보해 지난 3월 공사에 착수했다.

사업은 가동보 28.5m 개선과 용수로 92m 정비를 중심으로 기존 구조물 정비와 제방 신설·보강, 저수호안 돌쌓기 등을 함께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때 불어난 물을 보다 원활하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천의 통수 능력과 수위 조절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평상시에는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양지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군은 개선된 가동보를 적기에 운영해 하천 수위를 조절하고 유입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했으며, 주변 침수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하천 수위를 관리했다.

특히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실제 집중호우에 대응하면서 개선된 가동보의 수위 조절과 배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군은 집중호우 이후 남은 공정을 마무리해 지난 8월 사업을 최종 준공했으며, 주변 산책로 포장 등 하천 주변 환경도 함께 정비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한,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화된 양지천의 치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동보와 제방 등 주요 하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인 하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예술촌·역~비비정 일대 밤길 밝힌다

‘안심가로등 플러스’ 공모 선정 월드비전 사업비 3억원 지원

완주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2026년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공모에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역 일원이 최종 선정돼 야간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선정으로 월드비전이 전액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해당 구간에 지능형 기둥(스마트폴) 20곳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한다.

군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시설물을 넘겨받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골목과 이동로를 환하게 밝혀 통행 안전을 지키고,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야간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신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민간사회복지사 마음 치유·역량 강화 마무리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지난 10일 지리산 소극장에서 관내 민간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민간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의 마지막 4회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민간 활동가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계획된 총 4회차의 장기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대원의 막으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강연에는 밸류업컨설팅의 김명숙 본부장이 초빙돼 ‘나를 돌보고 현장의 활력을 찾아가는 실천’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김 본부장은 마음 치유와 활력 충전을 이끌어온 회복 전문가로서 지친 활동가들을 위로하고 복지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힐링 멘토의 면모를 보여줬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남을 돕는 이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복지가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빛나는 종사자분들의 힘과 실천을 늘 응원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추석 앞두고 임도 171km 풀베기 정비

완주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임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임도를 대상으로 가을철 임도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임도변 잡초와 잡목 등을 정비해 임도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추석을 맞아 산림을 찾는 성묘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9월 말까지 관내 임도 171km 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자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요령 숙지 등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많은 군민과 귀성객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도변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도 관리와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모집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동아리’를 모집한다.

건강동아리는 남원시 거주자 5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모임으로, 걷기, 운동,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거주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건강동아리이며, 영리·종교·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동아리, 강사가 중심이 되어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동아리는 신청이 제한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인바디 검사, 혈압·혈당 측정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교육 장소와 운동용품(밴드, 아령, 스텝박스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건강동아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620-794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청년들, 지역기업 분석해 취업역량 키워

스타데이 기업분석 경진대회 성료 게임과학교대진팀 대상 수상

완주군이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스타데이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어린이체육관에서 ‘2026 완주군 취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스타데이 기업분석 경진대회 본선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9개 팀이 참가해 각 팀이 직접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업, 산업 동향, 직무 및 채용정보 등을 조사·분석했다. 참가자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경쟁력과 과제를 도출하고 아이디어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약 4개월 동안 기업조사과 자료분석, 발표 준비 등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발표 구성과 스피치 역



<사진=완주군>

량도 함께 높였다.

본선에서는 참가팀별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의 논리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발표 전달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경연 결과 대상은 LS엠트론을 분석한 게임과학교등학교 ‘대진팀’이 차지했다. 대진팀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발전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을 분석한 우석대학교 ‘영양을 그린팀’이 선정됐다. 영양을 그린팀은 기업의 사업 특성과 시장환경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 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업을 직접 들여다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 보는 기회가 됐다는 호평을 얻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장류제조업계 “출하 규제 풀어달라”

도·군,사조 순창공장에서로 청취 지역 연고산업 예외 인정 건의

순창군이 지난 9일 사조산업(주) 순창공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6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장류 제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 연고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전북도 자치제도와장을 비롯한 도·군 관계자 8명이 참석해 관계자들과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이

제한된다. 장류 제조업 역시 대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거나 공장 증설 및 생산라인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창은 대상과 사조산업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보급형 장류의 대량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출하량 제한으로 기업의 생산 자율성이 위축되고 지역 내 투자와 고용 창출이 제약받고 있다. 여기에 타 지역산 미인증 장류의 유통 확산으로 순창 장류 브랜드의 신뢰도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은 대기업의 보급형 대량생산 시장과 전통 장류의 프리미엄 수제 시장은 소비층과 유통 구조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산

업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 연고산업이 신규·증설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건의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읍무즈만 및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전달하고, 이후 검토 결과를 해당 업체와 공유해 후속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연고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만경강 발원지 완주, 전국 생물다양성대회 성료

전국서 600여명 방문객 참여 지속가능농업·생태 미래 제시

만경강 발원지 완주군에서 최근 전국 규모로 열린 ‘제6회 전국 생물다양성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생태친화 도시의 진면목을 입증했다.

군은 최근 고산미소시장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를 통해 600여 명의 방문객과 함께 농업과 자연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상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정 생태계를 간직한 완주의 환경적 가치를 집약해 선보였다. ‘자연의 속도에 맞춰 미래를 연결하다(부제:함께 있는 생명의 그들)’를

표어로 내걸고, 만경강 최상류의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논 생물 관찰 체험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완주의 친환경 눈에 들어가 다양한 수생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서식지를 탐구한 현장 체험은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농업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 됐다.

대회와 함께 치러진 ‘제13회 전북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는 우수 친환경 농업인 표창을 비롯해 친환경 농업의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외국인 주민들 가족과 함께 산단 환경정화 봉사

완주군 외국인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 '어울림 봉사단'은 최근 봉동 둔산공원과 완주산업단지 도로변 일대에서 거리 환경을 깨끗이 가꾸는 정화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8월 첫발을 댄 '어울림 봉사단'은 완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50여 명으로 꾸려졌다.

단원들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외국인주민 총 52명이 참여해 봉동 둔산공원과 완주산업단지 인근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활동 초기에는 노동자 본인 위주였던 참여가 최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눔으로 넓어져, 가족 단위의 자연스러운 안착이라는 값진 성과를 낳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승명종합건설 군산 저소득가정에 백미 기탁

군산시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양선옥)는 (유)승명종합건설(대표 김승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백미 10kg 5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 50 세대에 전달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유)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대표는 나운1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매년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를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승수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 기업·시의원·급식센터 인재 키우기 '한뫼'

정광알미늄·김경섭 의원 급식지원센터, 장학금 기탁

정광알미늄(대표 남해동)과 김경섭 정읍시의회 의원,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센터(센터장 김창민)가 지난 10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각각 300만 원씩 모두 9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정광알미늄은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금속 구조물과 창호 시공업체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장학금

을 전달했다.

김경섭 의원은 지난 5일 아들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결혼을 축하해 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의 미래를 이룰 학생들에게 돌려주고자 기탁을 결정했다.

급식지원센터는 정읍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들여 지역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와 건강한 학교 급식에 힘을 보태는 데 이어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대한한돈협회 익산지부, 돼지고기 기탁

저소득가구 등에 지원

익산시에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 한 끼를 위한 든든한 나눔이 전해졌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사)대한한돈협회 익산지부(지부장 김달호)'가 시청을 방문해 돼지고기 800kg (1,1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익산시 다이로움 나눔공간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달호 지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들이 영양 가득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용지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유)대신신재생산업 김제로타리클럽 나눔 활동 펼쳐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유)대신신재생산업과 김제로타리클럽이 관내 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총 550만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싱크대 교체와 화장실 타일 보수 등을 지원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수 (유)대신신재생산업 대표와 김성국 김제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대산농장,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부

고창군 대산농장 김정채·송귀자 부부가 지난 10일 대산면주민 행복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온 부부는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성금 기탁과 함께 고창군에 달걀을 기부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성금과 물품을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정채·송귀자 부부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청년회의소 조항우 회장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은 부안청년회의소 조항우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조항우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항우 회장은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부안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뜻깊은 기부에 동참해 주신 조항우 회장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사매면, 추석 맞이 '한가위 복 꾸러미' 전달

남원시 사매면(면장 김식목)은 지난 1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90세 이상 독거 어르신 10가구에 식료품이 담긴 '한가위 복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명절을 앞두고 홀로 생활하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현장 중심의 복지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김주한 민간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들과 함께 복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가전제품

화재예방

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연기나, 타는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하지 말고 해당업체에 문의하세요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뺀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끝까지
꽂아 주세요

〈一事一言〉



하루 3.6명의 배신. 신뢰 무너진 보육 현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단행하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5년간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00명 적발

아이를 믿고 맡긴 곳에서 하루 평균 3.6명의 교사와 보육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현장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사범이 무려 6,00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과 보육 행정이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민낯이다. 가정의 돌봄을 대신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간이 도리어 아이들에게 실체적인 공포와 상처를 안기는 위험지대로 전락했다는 현실에 부모들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이 사태가 더욱 분노스러운 이유는 이들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점에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도리어 학대의 주범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보육·교육 시스템 전체의 도덕적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부모들은 국가와 사회를 믿고 아이를 맡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폭언과 폭행, 방임의 비보였다. 이는 한 가정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신뢰 자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동안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며 요란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통계가 증명하듯 땀집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수사방관은 아무런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를 ‘개인’의 스트레스에 따른 일탈’이나 ‘과도한 업무에 의한 순간적 실수’로 합리화하려는 저열한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어린이아이를 향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구조적 방임이 오늘날 6,000명이라는 가공할 숫자를 만들어낸 진짜 원인이다.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방임
검증 강화·무관용 엄벌만이 답

이제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교원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과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성과 적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필터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지 자격증 이수 기준만 채우면 누구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허술한 검증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 심리 평가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1인당 아동 수 비율을 낮춰 노동 강도를 현실화하는 환경적 개선도 병행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엄정한 처벌이다. 아동을 학대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관련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학대 혐의가 입증되어도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벌금형에 그쳐 이름만 바꾼 채 타 시설이나 인근 학원으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관내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과 기관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 현장의 자정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제도의 그늘 속에서 아이들이 울부짖는 동안, 보육의 공공성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 당국은 이번 통계가 던지는 엄중한 경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으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철저한 인성 검증, 엄격한 현장 감독, 그리고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만이 무너진 보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

사 설

정동영이 띄운 ‘북미회담 승부수’, 평화의 문 열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기회의 창’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북미 대화를 지켜보는 데 머물지 말고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의 판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

정 장관이 강조한 핵심은 과거의 경제협력 중심 접근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근본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를 넘어 평화체제를 설계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북미회담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연결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미 수교와 북핵 문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남·북·미·중이 함께 논의하자는

구상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북미 양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대화의 공간을 넓히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다만 평화를 서두른 나머지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됐고 남북 간 신뢰 역시 크게 무너졌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되 확고한 안보태세와 비핵화 원칙은 지켜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 출신 정동영 장관이 다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다. 정 장관과 이재명 정부가 북미회담이라는 ‘기회의 창’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꿔내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저녁 / 송기원

새의 그림자가 길게 끌로 가는 것은 누구일까
땅거미가 야금야금 갈아 먹는 것은 무엇일까
붉은 옷의 승려가 사는 서녘에서는
마지막 시체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떠난다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먼 세상의 일이다
서른세 번, 망자를 거두는 종이 울리면
어렵사리 네가 붙잡은 나머지 사라진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땅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2024년 세상과 작별했다.

ㅣ독자투고ㅣ

도장 찍는 순간, 전 재산이 사라진다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들을 노린 조직적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강통전세’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파산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전임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다. 계약 전 작은 확인 하나가 평생 모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사 박재원



전북타임스신문

전북의 자연처럼, 맑고 깨끗한 소식을 전합니다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금암동),5층 TEL 063)282-9601~3

돌봄에서 자립까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김제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자립과 사회참여 기반 강화

장애인복지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장애인복지가 생계지원과 시설보호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리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김제시 역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장애인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생활안전 지원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돌봄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장애인이 생활해 온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사회활동, 주거와 이동 등 개인의 삶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김제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자격 갱신, 등급 변경 등을 수시로 처리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터링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이용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제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7개 제공기관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529명의 등록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단순한 돌봄서비스가 아니다. 장애인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의 기반이다. 이는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언어·음악·미술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운영해 사회적 향상과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개별 맞춤형 매칭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의료지원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김제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와 진단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있다.

생활안전 지원은 자립의 출발점이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돼야 장애인이 재활과 교육, 취업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단순한 급여 지급에 머물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 등록과 의



료비 지원 등 필요한 제도를 안내해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하는 기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서는 힘
김제시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 경험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9명의 참여자들은 행정업무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고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움과 소통으로 넓어지는 일상

김제시는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성되어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

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집적화되어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성 보장과 한곳에서 여가, 돌봄, 취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제공, 해결하고 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 머무르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적응훈련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김제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은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점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도시가 곧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라는 인식 아래 생활 속 장벽을 낮추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김제

장애인복지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아니다.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화로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모든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일이다.

생활안전과 의료지원에서 시작해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돌봄, 일자리와 직업재활, 평생교육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필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기관과 제공기관,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의 공백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장애인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생활안전 지원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돌봄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